

전북도 '제조현장 스마트화' 나섰다

지역산업 체질개선 '스마트공장' 81개 연내 구축 생산성 향상·품질경쟁력 제고·작업환경 개선 효과

전북도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구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81개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도입한 지능형 공장이다.

전북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제고, 경쟁력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최근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사업인 대우전자부품(주) (정읍 소재)에서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계획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

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 분리기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도는 3대 추진전략과 10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분리기 조성, 기반조성, 지원확대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를 스마트제

조혁신센터로 운영하고, 스마트기계 제조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거점 센터를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래형 상용차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개선 중인 상황에서 제조현장 스마트화는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는 제조업 혁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용을 드러냈다. <순창군 제공>

순창의 랜드마크 '체계산 출렁다리' 완공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아찔한 스릴감 관광객 이목 집중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순창군에 따르면 체계산 출렁다리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국비 34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2억여원이 투입되는 순창군의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다.

체계산 중턱 75~90m 지점에 270m 길이로 무주탑 현수교로 조성 중인 출렁다리는 지난해 7월 착공해 현재 대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며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출렁다리 폭이 15m로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하면서 관광객에게 아찔한 스릴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이를 느끼기 위해 찾는 젊은 관광객들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렁다리를 비롯해 산책로, 어드벤처 전망대, 주차장(500여대), 농산물 판매소 등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본격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체계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순창 적성 들녘에 팝아트를 접목해 유색벼로 경관 조성에도 나서며, 출렁다리에서 보이는 전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 다리가 무주탑 현수교로 국내 최장 거리를 자랑하는 만큼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출렁다리 시공 현장을 찾아 시공상황을 점검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다리를 걷다가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한 스릴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이를 느끼기 위해 찾는 젊은 관광객들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렁다리를 비롯해 산책로, 어드벤처 전망대, 주차장(500여대), 농산물 판매소 등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본격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렁다리를 비롯해 산책로, 어드벤처 전망대, 주차장(500여대), 농산물 판매소 등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본격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정영민 기자 jyg@



메기 치어 55만 마리 방류 고창군은 최근 주진천을 비롯한 7개면 27개 저수지와 하천에 메기 치어 5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메기치어 방류는 몸길이 6cm이상으로 고창군 내수면 수역 특성에 적합하고, 환경적응력이 높으며 전문기관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종이다. <고창군 제공>

폭염 온열 환자 사전 예방 군산시,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군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1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감시체계는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일일 온열 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예방수칙홍보를 온열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은 ▲물을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정오~오후 5시) 외출 자제하기 ▲그늘·바람으로 시원하게 지내기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대행 기간 동안 보건인력 40여명이 직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424개소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전수칙 집중 교육·홍보로 폭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남원시, '옷칠·목공예 마을공방 사업' 추진

남원시민들이 옷칠과 목공예 등을 함께 만들고 배우는 공간인 마을공방이 들어선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한 '2019년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정부 예산(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입해 마을공방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조산동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시설인 토박이단지를 리모델링해 마을주민을 위한 사랑방이 될 마을공방을 만든다.

이 곳에서는 옷칠과 목공예 등에 필요한 장비도 갖춰진다. 또 이곳에는 옷칠과 부채, 한지공예 분야의 명인들이 참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문화창작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목기의 본고장으로 옷칠목공예문화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가 선정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행복한 수다방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자살예방 '샘고을생명수호대' 발대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에 적극 앞장설 '샘고을생명수호대' 발대식이 지난 18일 정읍시보건소 2층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수호대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수호대원 위촉식과 생명지킴이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약지구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8개 초·중학교 청소년과 교육복지사 약 100명으로 구성되는 '샘고을생명수호대'는 학교별 자체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며,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생명수호대 활동 지역은 지역의 범위가 넓고 다수의 학교가 분포된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연지동, 시기동 일대다.

한편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129),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35-2102)에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자전거로 새만금 방조제·산·바다 누빈다

비경쟁자전거 대회 '제1회 새만금 그란폰도' 개최

"자전거를 타고 새만금의 산·바다·호수를 누빈다."

새만금개발청이 다음 달 2일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일대에서 장거리 비경쟁 자전거대회인 '제1회 새만금 그란폰도'를 개최한다.

그란폰도는 '긴 거리를 이동한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비경쟁 방식의 장거리 자전거 대회를 말한다.

새만금청과 테크노블러드코리아가 주최하고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와 더바이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관광 명소로서 새만금의 가치를 알리고,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그란폰도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갖췄다.

새만금 그란폰도는 그란폰도(115km), 메디오포도(78km), 사이클 단체인 TTT(62km)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된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